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14)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14호실로 달걸음을 옮기었다.

호실에 들어서니 벽면우에 써어진 『소할바탕회의』,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 『조선혁명의 병도중심 형성』 등의 글들이 우리 눈길을 끌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었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맞이하기 위한 새 단장을 펼친다.』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소할바탕회의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해 맞이하기 위한 새 단장을 펼친다. 그를 보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지에 끝이 빠졌다.

우리의 눈에 안겨든 것은 돈화원 소할바탕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 간부회의에서 보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작품이었다.

불멸의 영상을 우리로는 참관자들에게 강식하는 이렇게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29(1940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돈화원 소할바탕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 간부회의를 소집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해 맞이할대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습니다.』

그리면서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일제멸망의 불가피성과 당시 혁명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전략적 단계를 혁명적 사변시키로, 일제와 마지막 관계의 싸움을 하는 최후결전시기로 규정하시었다고 하면서 해설을 이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제권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인민을 정치사상으로 끈밀히 준비시키자 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가 이 전략적 파업을 성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서는 대부대 전진으로부터 소부대 작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제권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인민을 정치사상으로 끈밀히 준비시키자 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가 이 전략적 파업을 성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서는 대부대 전진으로부터 소부대 작전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나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였다.

만일 그때 우리가 대세의 흐름을 제때에 보지 못하고 무질의 성과에 만 금급하게 떠부대 활동을 계속해 머물며 역할도 보존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끌어쳤을것이며 역사에 순란한 협사들로만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

벽면에는 1940년대 초엽 국내외 정세를 보여주는 신문,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을 벌여온 국체, 국내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으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해여 날수 없는 구령령이에 깊이 빠져들어 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모셔져 있다.

일제의 『대평양전쟁』도발, 도이 월란드와 이탈리아의 군사행정 계획,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일제군 부우두미리를 들고 『토일』보의, 우리 인민에 대한 일제 무제한 한란락이다.

참관자들은 『베일신보』를 비롯하여 여러 민족자료들을 보면서 1940년대 초의

전시회를 더 잘 알 수 있었다.

파코도이 월란드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은 인류를 류현왕국의 불길과 함께 세계에 걸친 폭넓은 타락적인 『토일』공세를 치명으로 급격히 번져갔다.

이에 발맞추어 일제는 침략전쟁을 아시아전역으로 확대하였다.

파코도이 월란드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은 인류를 류현왕국의 불길과 함께 세계에 걸친 폭넓은 타락적인 『토일』공세를 치명으로 급격히 번져갔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려움을 들여다보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탈파정까지 빼앗고 밟고 그릇까지 탄핵해간 그렇게 지속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

을 통하여 일제의 멀양의 불가피성

을 확신하면서도 항일혁명전쟁을 세

로운 단계에 밀접하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기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탄핵만행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 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려움

을 들여다보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

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탈파정까지 빼앗고 밟고 그릇까지 탄핵해간 그렇게 지속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회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

을 통하여 일제의 멀양의 불가피성

을 확신하면서도 항일혁명전쟁을 세

로운 단계에 밀접하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기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탄핵만행은 동서고

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

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려움

을 들여다보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

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탈파정까지 빼앗고 밟고 그릇까지 탄핵해간 그렇게 지속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회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

을 통하여 일제의 멀양의 불가피성

을 확신하면서도 항일혁명전쟁을 세

로운 단계에 밀접하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기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탄핵만행은 동서고

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

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려움

을 들여다보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

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탈파정까지 빼앗고 밟고 그릇까지 탄핵해간 그렇게 지속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회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

을 통하여 일제의 멀양의 불가피성

을 확신하면서도 항일혁명전쟁을 세

로운 단계에 밀접하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기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탄핵만행은 동서고

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

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려움

을 들여다보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

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탈파정까지 빼앗고 밟고 그릇까지 탄핵해간 그렇게 지속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회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

을 통하여 일제의 멀양의 불가피성

을 확신하면서도 항일혁명전쟁을 세

로운 단계에 밀접하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기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탄핵만행은 동서고

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

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려움

을 들여다보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

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탈파정까지 빼앗고 밟고 그릇까지 탄핵해간 그렇게 지속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회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

을 통하여 일제의 멀양의 불가피성

을 확신하면서도 항일혁명전쟁을 세

로운 단계에 밀접하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기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탄핵만행은 동서고

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

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려움

을 들여다보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

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탈파정까지 빼앗고 밟고 그릇까지 탄핵해간 그렇게 지속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회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

을 통하여 일제의 멀양의 불가피성

을 확신하면서도 항일혁명전쟁을 세

로운 단계에 밀접하게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기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탄핵만행은 동서고

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것

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세계 어려움

을 들여다보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

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탈파정까지 빼앗고 밟고 그릇까지 탄핵해간 그렇게 지속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회고

하였다.

모두가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섬마을 분교의 참된 혁명가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3중영예의 붉은기 평북종합대학 교원대학부속 소학교 람도분교 교원 인정순동무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명도자 교원대학부속 소학교 람도분교 교원.

그가 지켜온 교정은 깊이 있고 그가 서있는 교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없던 무인도에 문교가 선배로부터 지난 20여년 세월 파도소리와 함께 기운을 소리만으로 들려오는 조국의 한민족의 삶에서도 누가 보건 말건, 알자전진 밤길을 후대 교육 사업에 깨끗한 향상과 열정을 아낌없이 퍼져가고 있는 원령평등한 내교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당이 교육자들에게 적극적 혁명가라는 평가는 그렇듯 깊고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다.

이름은 인정순, 직업은 3중영예의 붉은기 평북종합대학

인정순동무와 섬마을아이들은

너무도 꿈만 같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게 되었다.

방학을 맞아 봄으로 나왔던 교원과 학생들이 강추위에 배길이 막히 개학날이 가까워와도 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밤을 쉬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히 사랑의 비행기를

보내주시겠던 것이다.

(나라에서 그처럼 바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를 통한 섬분교의 교원, 학생들을 위해 당시 교육자들에게 적극적 혁명가라는 평가는 그렇듯 깊고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다.

설분교의 학생들을 위해 날은 사랑의 비행기, 그것은 조국의 만년미래를 위한 스텝스러운 표언했다. 전쟁로병의 딸답게, 전시 공로자의 딸답게 수령님의 유훈 신의 주교원학부수 인민학교 (당시) 교원 인정순동무였다.

그는 지도에서 어느 한 선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한참만에 아껴주고자 한 점과 함께 「한도」라는 글자가 눈앞에 밝혀졌다.

그의 뇌리에서는 험난한 국경에 옮겨온 교장이 멀리진 국가적인 조치에 의해 무인도였던 람도에 등대가 새로 서고 등대원들의 자식들을 위한 문교와 함께 천사들을 위한 장군님의 헌신과

제3기 학생들을 짐으로 끌려온 그는 교실바닥에 그만

딛고선 땅은 크지 않아도

람도의 면적은 1km²로 월성리이다. 한눈에 빼어나게 보이는 섬은 섬을 비워 놓고 이 품도 알수 없는 잡풀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람도에 첫발을 둘어놓은 다음 날 등대장을 비롯한 등대원들과

각종들이 인정순동무의 짐을 찾았다.

그들은 외진 섬에 선생님까지 찾아와 주어 정말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도 물의 아이처럼 몸과 마음에 배울 수 있게 됐다고 너도

나도 기쁨을 금지 못해했다.

«하마다 섬마을이들을 위해 사랑의 비행기가 날리는 소식에 접할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끊임없이 춤을 춰지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자신의 이야기로 되었으니...»

그를 날마다 편지로 찾았던 그는 그날은 편지에 끊임없이 편지를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힘같은 사랑과 윤정에 대비해 그리고 아이들의 밟은 풋을 조국의 미래를 지키시려 품입없는 전선생활의 길을 걸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보강하고 학생들을 짐으로 끌려온 그는 교실바닥에 그만

인정순동무는 잡풀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그날 공장의 혁신자이며 청년 동맹초급일군인 남편은 인정순동무에게 말했다.

«그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요. 그러나 끝까지 잘 길이면 날 떠나겠소.»

이를 날 인정순동무는 아침 일찍 학교로 출근하여 교장실에

들어왔다. 이후로 유틸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간 품고 있었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는

